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7.27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MSFT, META, AMZN 실적 관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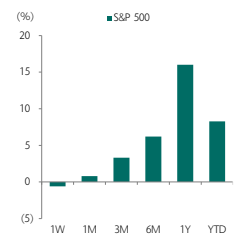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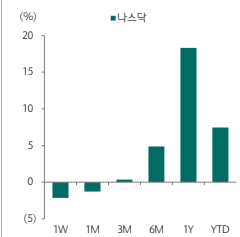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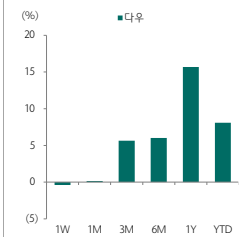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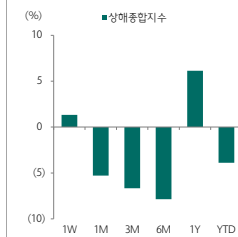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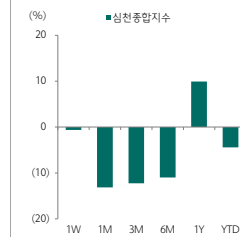
자본지출 가이드선 상향 전망

- AI 하드웨어 기업들(반도체 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이번 주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MSFT, META, AMZN 등)이 실적 발표에서 자본지출 가이드선을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알파벳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하락했는데, 공격적인 자본지출을 제시한 상황에서 클라우드 이익 약화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의 이익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자체 인프라보다 비싼 외부 컴퓨팅을 쓸 예정이기 때문이다. 외부 컴퓨팅 용량을 브릿지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알파벳은 우리가 지난주 위클리를 통해 주장한 것처럼 자본지출 가이드선을 상향했는데, 강력한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FY 2026 자본지출 가이드선을 기존 1,800억~1,900억 달러에서 1,950억~2,050억 달러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으나 FY 2027에도 2026년보다 의미 있는 규모의 자본지출 확대를 시사했다. 자본지출의 60%는 서버에 할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데이터센터 건설과 네트워킹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고객 확보 및 수요 대응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 AI 인프라 기업들에겐 호재다.
-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에서 시장참여자들이 주목할 요인은 클라우드(Azure)의 성장과 내부 자원 할당, 코파일럿의 성장과 이익 가이드선, 자본지출 가이드선 상향 여부 및 자원 분배 등이다. Factset 기준 클라우드 사업부의 실적 전망은 302억 달러(YoY +38.6%)다. 구글 클라우드 성장률과 발언 등을 감안하면 컨센서스는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추가 성장 여지는 내부 자원 할당 여부에 달려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코파일럿 등 내부에 할애해야 하는 컴퓨팅 용량은 Azure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 내부 자원 할당이 클라우드 실적 성장을 저해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의 성장을 보여줘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1월(FY 2Q26)부터 M365 코파일럿의 유료 좌석 수를 공개하고 있다. 4억 5,000만 상용 구독자 중 1,500만 개의 유료 좌석(YoY +160%)이 있다고 밝혔고,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선 2,000만 개로 전년 대비 250%의 성장률을 강조했다. 이번 분기 가이드선에선 FY 3Q26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소 500만 석 이상 증가해야 한다. 전체 365 고객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빠르게 업셀링이 가능하다면 이익에 긍정적일 것이다.
- 코파일럿 성장을 통해 이익 개선을 보여준다면 시장참여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크다. 코파일럿을 적용하는 고객이 많아진다는 것은 높은 요금제로 갈아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AI를 활용해 이익 개선을 증명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팅 자원 내부할당을 정당화 할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공통적인 외형 확장 제약 요인 중 하나는 컴퓨팅 인프라 부족이다. Azure 등 외부 컴퓨팅 판매의 성장 제약 요인이다. 코파일럿을 적용한 M365가 빠르게 확장된다면 높아진 ARPU로 보완 가능하다.
-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지출 컨센서스는 361억 달러로 전년대비 11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 분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FY 4Q26 자본지출 가이드선은 400억 달러 이상이다. 컨센서스엔 다소 투자에 보수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성향이 반영됐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본지출을 보수적으로 언급한다면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클라우드 사업부와 코파일럿의 성장, 이익의 개선, 자본지출 가이드선의 상향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시장참여자들의 AI 산업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고 AI 하드웨어 전반 투자심리에 긍정적일 것이다.

- 메타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클라우드 사업 진출, 자본지출 가이드스, 광고사업 등이다. 시장참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 클라우드(네오 클라우드) 사업 진출 구체화다. 과거부터 여유 컴퓨팅 용량 판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으나, 시장에 본격적으로 언급된 건 7월 1일 블룸버그 보도 이후다. 임대한 첨단 컴퓨팅 인프라는 메타의 프린티어 AI 모델 개발에 활용하고 유휴 용량은 추론에 활용할 다른 기업들에게 임대할 계획으로 보인다.
- 유휴 용량을 임대하는 수준을 언급하면서 규모를 공개한다면 숫자로 환산 가능해진다. 시장에선 구체화된 신규 사업 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알파벳이나 아마존처럼 Full API나 모델 서비스까지 확장되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장기 매출 성장 여력은 커지겠지만 시장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을 키울 여지가 있다. AI 모델의 경쟁력, 영업조직 부재, 과도한 자본지출 우려 등의 걱정으로 번질 수 있다. 네오클라우드 사업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시장참여자들의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 공격적인 자본지출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다. FY 2027 투자 전망에 시장참여자들은 주목할 것이다. 광고 사업부는 이미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메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으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으며, 광고 단가도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월드컵, 선거 등의 이벤트도 있었다. 광고 노출(Q)과 단가(P)의 조합이 유지되는지가 중요하다. 단가 성장이 둔화된다면 AI 광고 개선 효과 소진 신호로 읽힐 수 있다. MUSE 신제품의 상업화도 중요하다. 클라우드가 없다는 점에서 AI 투자의 ROIC를 증명할 지표가 부재했다. MUSE 기반의 제품 채택 또는 과금 지표가 구체화된다면 시장참여자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 아마존 실적의 체크 포인트는 클라우드 성장, 인프라 사업 진척 정도(Trainium), 자본지출 및 잉여현금흐름, 리테일 매출 등이다. 이번 분기 아마존 웹 서비스(AWS)의 매출 컨센서스는 4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전 성장률 YoY +28.4%). B2B의 강점이 있는 AWS도 컨센서스 수준의 성장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알파벳처럼 고속 성장이 어려운 이유는 아직 Trainium이 TPU처럼 외부에 판매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참여자들이 아마존의 인프라 사업에 주목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다.
- ASIC의 외부 판매 전략과 로드맵, 더 나아가 초대형 고객 확보까지 언급한다면 시장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4월 실적 발표에서 아마존의 경영진은 Trainium의 외부 판매 가능성을 언급했다. 알파벳은 TPU를 외부 데이터센터용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클라우드 백로그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졌다. 아마존의 자체칩은 아직 AWS 내부에서 고객에게 임대하는 용도에 머물러 있다. 지난 분기 언급한 것처럼 외부 판매가 구체화된다면 클라우드 임대업에 더해 칩 판매라는 두 번째 성장 축이 더해질 것이다. 수주잔고와 밸류에이션 양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재료가 될 것이다.
- 내년까지 자본지출도 공격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잉여현금흐름 전망은 -127억 달러다. 경영진은 AWS 사업 초기 투자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장참여자들은 불안한 거시환경으로 인해 기업들의 과한 자본지출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자본지출 상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선 위에서 언급한 수주잔고, AWS 성장 등이 동시에 나와야 한다. 리테일 사업의 이익이 중요한 이유다. 프라이메티가 포함된 분기이기 때문에 탑라인 매출은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리테일 사업의 이익 개선 여부와 고마진 광고 사업의 성장률에도 시장참여자들은 주목할 것이다.

이번 주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것은 자본지출 가이드스의 방향과 이를 정당화할 주요 증거(Azure, AWS 성장, 코파일럿 작성, 수주잔고 등)의 동반 여부다. 알파벳 사례처럼 자본지출 상향과 함께 이익훼손 가능성이 언급된다면 주가에 부담일 수 있지만, 수요와 이익이 함께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장참여자들의 AI 인프라 투자 지속성에 대한 확신은 강화될 것이다. 최근 AI 하드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변동성을 겪고 있으나, 자본지출 상향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AI 하드웨어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412.0	24,975.8	51,947.3	3,814.2	2,419.2
1W (%)	-0.6	-2.1	-0.4	1.3	-0.6
					

주) 7월 24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주(7월 20일~7월 24일) 리뷰: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상승, 관세, 높아진 금리 부담

- 미국증시 3대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이번 주도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3대지수 수익률은 다우 -0.4%, S&P 500 -0.6%, 나스닥 -2.1% 등이다.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0.1% 상승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0.7% 떨어졌다. 시장참여자들의 성장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성장주로 구성된 ETF(VUG)와 가치주로 구성된 ETF(VTV)의 수익률은 각각 -2.1%, +1.4% 등이다. 지수는 하락했으나, 변동성 지수(VIX)는 1% 떨어졌다. M7으로 구성된 ETF(MAGS)는 5.6% 하락했으나, M7을 제외한 종목으로 구성된 ETF(XMAG)는 0.5% 상승했다.
- 성장주의 약세는 높아진 금리 부담으로 보인다. 미국채 30년물 금리는 5.06%에서 5.16%까지 올랐다. 5월 19일 이전 고점이었던 5.18% 수준에 근접했다(장 중 고점은 5.198%). 초대형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미국은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 제조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파벳도 이번 실적에서 올해 자본지출 전망을 상향했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진 않았지만 내년에도 더 많은 투자를 예고했다. 알파벳은 채권까지 발행하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상승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 금리 상승은 높아진 유가와 관세에 대한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WTI는 장 중 92.8 달러까지 급등하기도 했으며, 브렌트는 102 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이 2주째 무력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협상의 여지도 열어놓은 모습이다. 현지시각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에 대해 대규모 공격도 가능하지만, 합의를 하는 더 현명한 전략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란도 강경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현지시각 23일 중재국을 통해 전달된 미국의 휴전안을 거부했다는 보도와 함께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도 했다.
- 현지시각 23일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해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국가별 여건에 따라 10~12.5% 수준의 관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후 미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관세 보복을 예고했다. 미국 기업과 미국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즉각적인 301조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 팩터로 부각받던 기업들이다. 높은 ROE와 견조한 잉여현금흐름 덕분에 어려운 거시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다. AI 투자사이클은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높은 금리 및 통화정책 불안이 있는 가운데 초대형 플랫폼들의 막대한 자본지출은 잉여현금흐름 불안정성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했을 것이다.
- GICS Level 1 기준으로 하락한 섹터는 커뮤니케이션(-6.1%), 경기소비재(-6.1%), 필수소비재(-1.4%) 등이다. 커뮤니케이션 가장 큰 변동성은 알파벳과 메타의 큰 폭 하락 영향이 컸다(GOOG -7.8%, META -7.9%). 경기소비재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 후 급락 영향이 지대하다(-17.8%). M7 기업 중 엔비디아만 상승했다(NVDA +2%)(MSFT -3.1%, AMZN -6.1%, AAPL -0.2%).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SOXX)의 주간 수익률은 +1%다.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매수세와 자본지출 수혜 기대가 반영됐다.

» 이번 주(7월 27일~7월 31일) 프리뷰: 지정학적 갈등, FOMC, PCE 가격지수, 빅테크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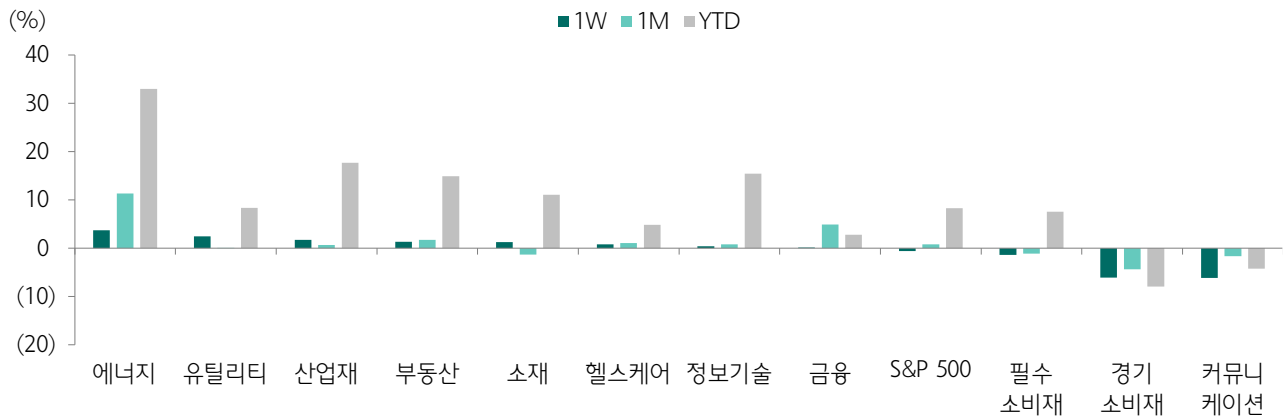
- 이번 주엔 미국 기준금리 결정, FOMC 성명서, 캐빈 워시 연준의장 연설, PCE 가격지수, 빅테크 실적 등이 예정돼 있다.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 현지시각 24일 미국이 이란 공습을 중단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시라는 보도가 있었다. 미군은 여전히 대규모 군사작전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만, 중국 등 제 3국의 중재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의 합의 여부를 지켜보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이 공습을 중단한 상황에서 사우디 아라비아가 후티에 보복 공습을 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사우디 선박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사우디의 공습 후 후티는 사우디의 석유시설을 다시 타격했다.
- 7월 미국 기준금리는 시장 컨센서스처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 둔화가 이어진다면 올해 남은 기간 동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7월 동결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물가와 고용이 더 강했던 6월에도 동결을 했기 때문이다. 헤드라인 CPI는 5월 YoY +4.2%, MoM +0.5%에서 6월 YoY +3.5%, MoM -0.4%로 완화됐다. 핵심 CPI는 5월 YoY +2.9%, MoM +0.2%에서 6월 YoY +2.6%, MoM Flat으로 둔화됐다. 비농업 고용지수도 5월 172,000건에서 6월 57,000건으로 약해졌다. 우리가 주장했던 것처럼 관세 영향이 약해졌을 여지가 있고, 연초 나타났던 고용 반등이 짧게 끝났을 가능성도 있다.
- 시장참여자들은 FOMC 성명서와 연준 의장의 발표에 주목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원론적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변수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찾기 위해서다. 연준의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연준은 유가 영향을 일시적으로 보지만, 고유가 장기화가 될 경우 수요 파괴 영향보다 물가를 높이는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가 유발한 공급망의 인플레이션 및 소비자 전가 여부도 확인하려 할 것이다.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캐빈 워시 의장은 과거 연준과 시장의 소통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었다.
- 6월 PCE 가격지수는 시장 예상 수준이거나 다소 약할 가능성이 높다. 미 노동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캐빈 워시 연준의장은 PCE 가격지수에 절사평균 도입을 주장했는데, 이번 PCE 가격지수에 반영됐을 지 여부도 중요하다. 절사평균을 도입할 경우 매달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오르는 품목과 지나치게 많이 내린 품목을 제외한 후 중간에 분포한 품목들만 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계산한다. 일시적인 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세 영향력을 과도하게 제외할 여지도 있다.
-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자본지출 확대 여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번 주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의 실적이 발표된다. 알파벳은 FY 2026뿐만 아니라 FY 2027에도 더 공격적인 투자를 시사했다. 근거는 강력한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자본지출의 60%는 서버에 투입될 예정이고, 40%는 데이터센터 건설과 네트워크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다른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도 자본지출 확대를 전망한다. 경쟁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본지출 가이던스를 상향할 여지가 높다고 판단한다. AI 인프라 기업들에겐 호재다.
- 이번 주 예정된 이벤트와 경제지표는 현지시각 27일 6월 헤드라인 내구재 주문 MoM(예상치 1.6%, 이전치 -4.5%) / 핵심 내구재 주문 MoM(예상치 0.9%, 이전치 1.4%) / 2분기 애틀랜타 연은 GDPNow(예상치 1.7%, 이전치 1.7%), 28일 OPEC 정례 회의 / ADP 주간 고용 변화(이전치 16,500 건) / 7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예상치 92.1, 이전치 91.2), 29일 EIA 주간 원유재고(이전치 2,010,000 배럴), 30일 FOMC 금리 결정(예상치 3.75%, 이전치 3.75%) / FOMC 성명서 공개 / 2분기 GDP QoQ(예상치 2.3%, 이전치 2.1%) / 헤드라인 PCE 가격지수 YoY(이전치 4.1%) / MoM(이전치 0.4%) / 핵심 PCE 가격지수 YoY(이전치 3.4%) / MoM(이전치 0.3%), 31일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예상치 54, 이전치 54) /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예상치 54.4, 이전치 54.4) / 7월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1년(예상치 4.2%, 이전치 4.2%) / 5년(예상치 3.3%, 이전치 3.3%) 등이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은 27일 CDNS / NUE / FFIV, 28일 V / KO / KLAC / STX / BA / GLW / UPS / MDLZ / AMT / SHW / RCL / ECL / HLT / NXPI / TER / CARR / DTE / XYL / HUBB, 29일 MSFT / META / LRCX / PG / ARM / APH / QCOM / SBUX / FTNT / GD / EQIX / ADP / JCI / LHX / HUM / GRMN / CMG / CBRE, 30일 AAPL / AMZN / MA / SYK / MO / SO / TT / PWR / MNST / VLE / KKR / ICE / CI / AEP / MPWR, 31일 ABBV / CVX / LIN / ETN / CL / CBOE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7/24)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412.0	0.0	-0.6	0.8	3.3	6.2	16.0	8.3
나스닥	미국	24,975.8	-0.6	-2.1	-1.3	0.4	4.9	18.3	7.5
다우	미국	51,947.3	0.5	-0.4	0.1	5.7	6.0	15.7	8.1
STOXX600	유럽	644.5	0.8	0.5	1.4	5.9	5.1	17.2	8.8
KOSPI	한국	6,690.6	-5.7	-1.9	-20.5	1.1	31.6	109.3	58.8
KOSDAQ	한국	748.2	-5.3	-5.5	-12.1	-39.0	-30.9	-7.3	-19.2
상해종합지수	중국	3,814.2	-1.6	1.3	-5.3	-6.7	-7.9	6.1	-3.9
심천종합지수	중국	2,419.2	-2.6	-0.6	-13.2	-12.2	-11.0	9.9	-4.4
항테크지수	홍콩	24,963.2	-1.0	1.6	10.1	-3.7	-8.0	-1.7	-2.6
TOPIX	일본	4,011.3	-1.1	-0.4	1.2	7.4	12.6	35.9	17.7
니케이 225	일본	64,611.2	-2.7	-3.3	-6.8	6.7	21.1	55.9	28.4
니프티 50	인도	23,767.5	-0.4	-2.3	-1.2	-1.3	-5.6	-4.3	-9.0
Vietnam	베트남	1,686.1	-0.8	-5.7	-9.9	-9.0	-7.9	10.1	-5.5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7.2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에너지: 미-이란 연속 군사 타격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재부각되며 유가 급등, 에너지 기업 주가 동반 강세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커뮤니케이션: 알파벳과 메타 등 대형 플랫폼의 AI 투자 비용 부담 우려가 지속되며 급락, 섹터 수익률 전반을 끌어내림
- 경기소비재: 테슬라 2분기 실적에서 수익성 악화와 잉여현금흐름 적자 전환이 확인되며 섹터 하락 주도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7/21	AMD 차세대 AI 가속기 MI450 공개 예정, HBM4 용량 엔비디아 상회 AMD가 22일 'AMD 어드밴싱 AI 2026' 행사에서 차세대 AI 가속기 MI450과 랙 스케일 시스템 헬리오스를 정식 출시할 예정. MI450은 GPU 1개당 HBM4를 432GB 탑재해 엔비디아 베라 루빈(288GB)을 150GB 상회. 오픈AI, 메타, 오라클 등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각 계약 규모는 1,000억 달러대로 알려짐. 삼성전자는 AMD MI450용 HBM4 우선 공급 사 자리를 확보한 동시에 엔비디아 루빈용 HBM4 양산도 진행 중
7/21	엔비디아, 차세대 CPU '베라' 세부 사양 공개 엔비디아가 데이터센터용 CPU '베라'의 사양벤치마크 정보를 공개하며 AI 서버 CPU 시장에 본격 진출. 베라 칩은 이미 오픈AI-엔트로픽·스페이스X에 6월 납품됐으며, 평균 판매가는 약 5,000달러, 올해 출하량은 130만개로 예상.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CPU의 중요성이 재부각되면서 AMD와 인텔은 올해 각각 128%, 149% 상승해 엔비디아(+8%)를 압도. 엔비디아는 GPU에 이어 CPU까지 자체 생산해 풀렉 시스템 전체를 판매하는 수직 계열화 전략을 강화
7/22	엔비디아, 유럽 네오클라우드 네비우스 지분 9.3% 확보 엔비디아가 네덜란드 AI 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의 지분을 9.3%까지 확대한 것으로 SEC 공시를 통해 확인. 지난 3월 20억 달러 투자 발표에 이어 추가 확대. 네비우스는 2030년까지 5GW 이상의 AI 컴퓨팅 용량 구축을 목표로 하며, 엔비디아는 최신 가속기 시스템을 조기 공급하기로 협력. 빅테크 4~5곳에 집중된 매출 구조를 네오클라우드로 다변화하는 동시에 엔비디아 생태계 의존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해석
7/22	TSMC, 내년부터 파운드리 가격 5~10% 인상 확정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TSMC가 지난달부터 고객사와 가격 인상 협의를 시작해 이달 5~10% 인상을 확정, 내년부터 최첨단·범용 반도체 전 공정에 적용 예정. 미국 애리조나 투자(2,650억 달러) 확대에 따른 비용 급등이 주요인. HPC 주문 중 고객의 기존 수요 전망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10~15% 프리미엄 부과도 검토 중
7/23	테슬라 2분기 순이익 예상치 하회, 스페이스X 합병 가능성 90%로 상향 테슬라의 2분기 GAAP 순이익이 11억1,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 감소, 시장 예상치(13억 달러)를 하회. 로보택시·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잉여현금흐름은 -10억9,000만 달러로 적자 전환. 콘퍼런스콜에서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간 "비즈니스 중복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합병 가능성을 시사, 딥워터의 먼스터 파트너는 합병 가능성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7/23	올해 AI 관련 채권 발행 4,890억 달러, 작년 연간치 이미 초과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AI 관련 회사채 발행액이 4,890억 달러로 작년 연간 추정치(3,220억 달러)를 이미 상회. 하이퍼스케일러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아마존(530억 달러)·오라클(250억 달러)·알파벳(200억 달러) 순. 2025년 초 이후 사모 시장의 데이터센터 거래만 총 2,000억 달러에 육박
7/23	오픈AI, 조지아주에 3.2GW 데이터센터 건설 오픈AI가 '프로젝트 카멜리아'로 명명한 조지아주 에핑엄 카운티 데이터센터 단지에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3.2GW 규모의 전력을 확보. 조지아파워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전력은 2028년부터 순차 공급 예정. 뉴욕주가 데이터센터 신축을 1년 유예하는 등 지역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뤄진 대규모 투자로 주목
7/25	트럼프, 14일 만에 대이란 공습 중단 지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13일 연속 승인해온 대이란 공습 계획을 처음으로 불허하며 공습 중단을 지시.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더 스마트한 전략은 이란과 협의를 이루는 것"이라며 "현재 이란과 대화 중이며 날이 갈수록 진지해지고 있다"고 밝힘. 이날 오만 대표단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협상차 테헤란에 도착했으며, 주변 소식통에 따르면 오만-이란 간 합의가 이번 주말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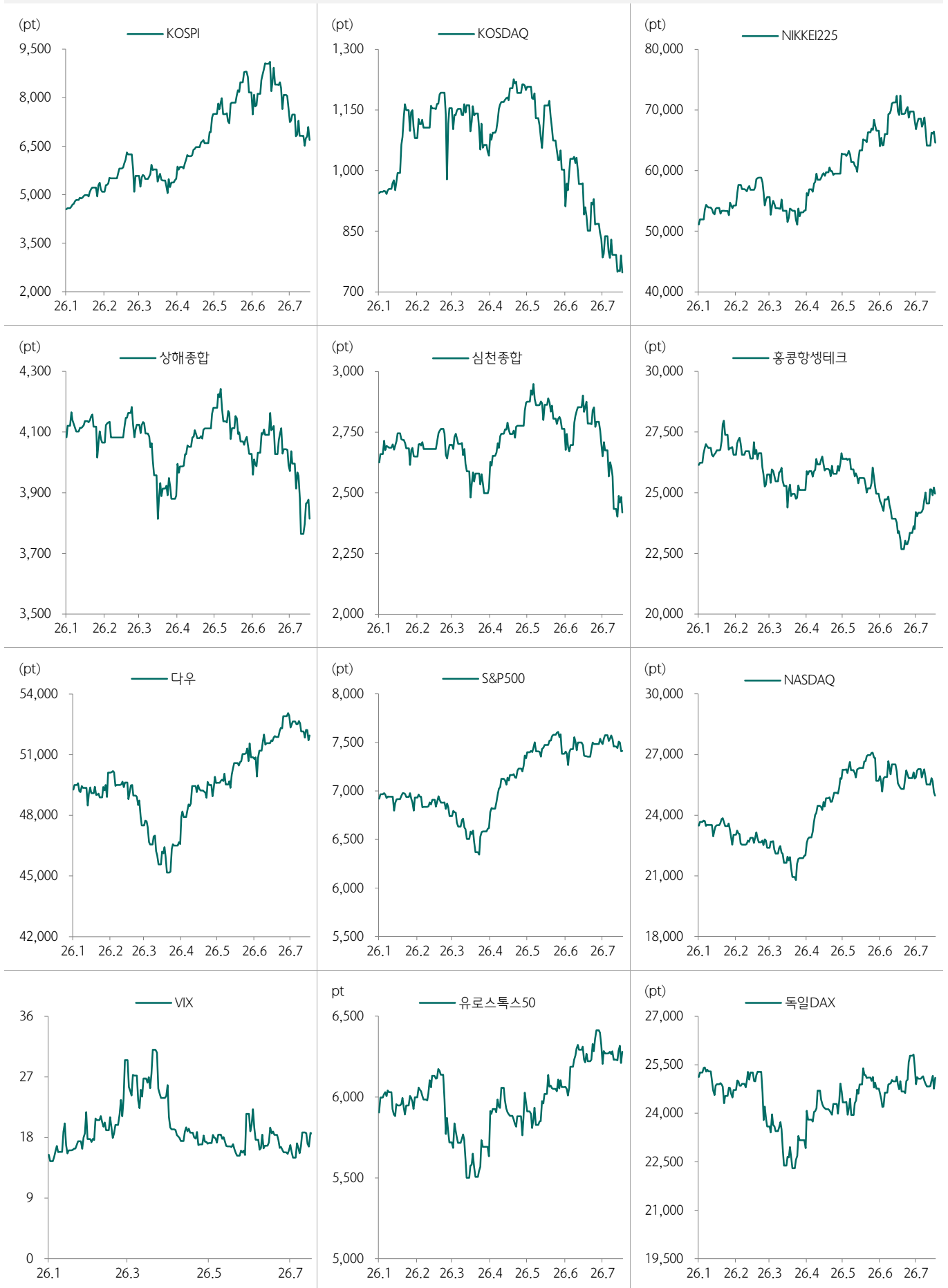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7월)

일	화	수	목	금
		7/1	2	3
		GIS FDS		
6	7	8	9	10
			PEP	DAL
13	14	15	16	17
PGR, FAST	JPM BAC GS WFC C	ASML JNJ MS BNY BLK PNC ELV UAL	TSM GE UNH NFLX ISRG ABT	TRV FITB ROP RF
20	21	22	23	24
STLD DPZ	SCHW DHR MMM NOC GM MSCI DHI EQT HAL KEY	GOOGL TSLA PM GEV TXN T NOW CME KMI WAB	INTC RTX TMO UNP BX LMT NEM FCX HON DLR URI	XOM AXP NEE VZ
27	28	29	30	31
CDNS NUE FFIV	V KO KLAC STX BA GLW UPS MDLZ	MSFT META LRCX PG ARM EQIX QCOM SBUX	AAPL AMZN MA SYK MO SO TT PWR MNST	ABBV CVX LIN ETN CL CB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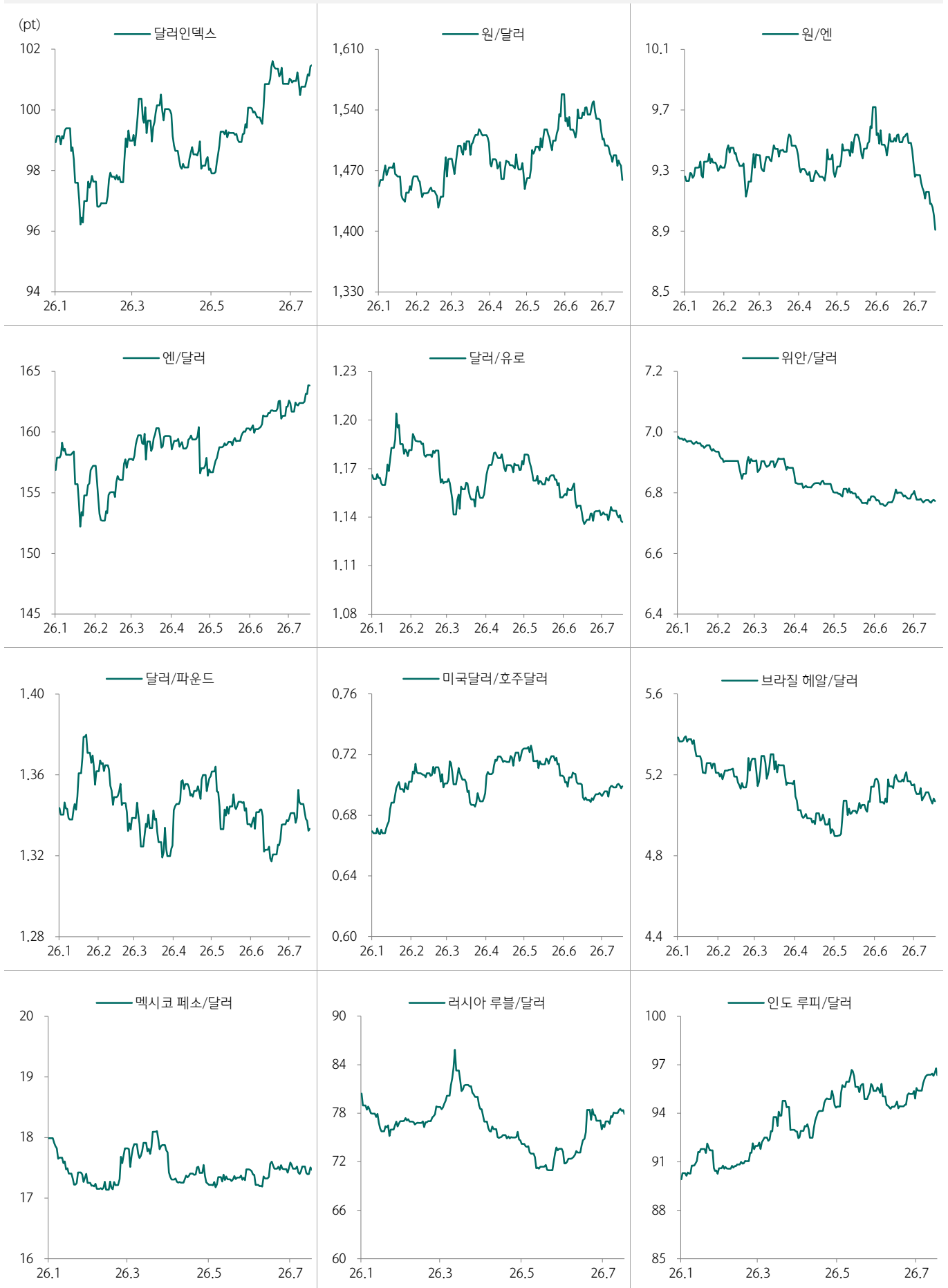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7/27(월)	7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6월 근원 내구재수주 [P] (MoM 이전 1.4%) 6월 내구재수주 [P] (MoM 이전 -4.5%)
7/28(화)	- 미국 FOMC(~29) *금리결정 7/30 03:00 KST 7월 CB 소비자신뢰지수 (이전 91.2)
7/30(목)	- 금리 결정 - FOMC 기자회견 6월 근원 소비자출물가지수 (MoM 이전 0.3%, YoY 이전 3.4%) 2분기 GDP [P] (QoQ 이전 2.1%)
7/31(금)	7월 미국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전 4.2%) 7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지수 (이전 54.0) 7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이전 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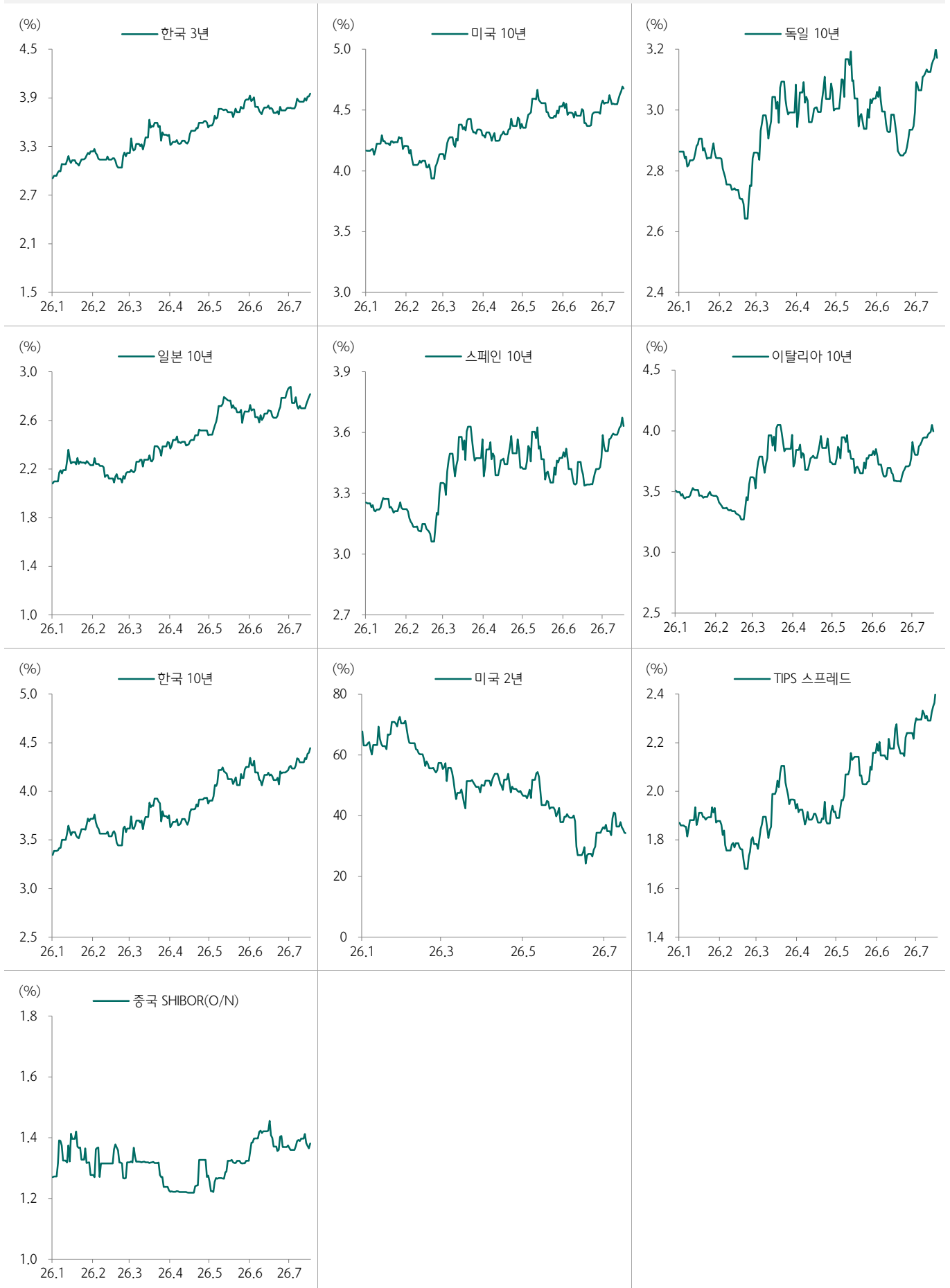
주요 지수 추이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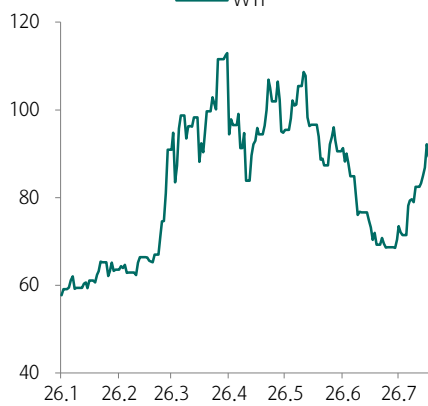


주요 금리 추이



주요 원자재 추이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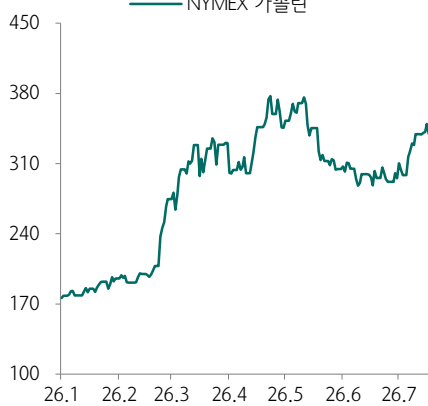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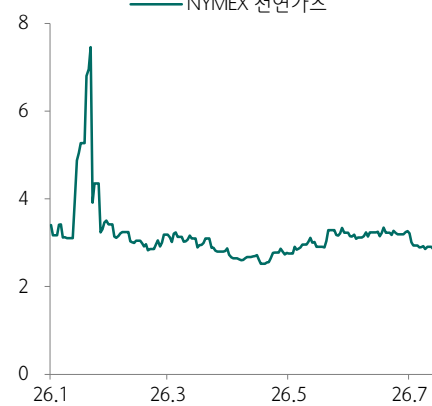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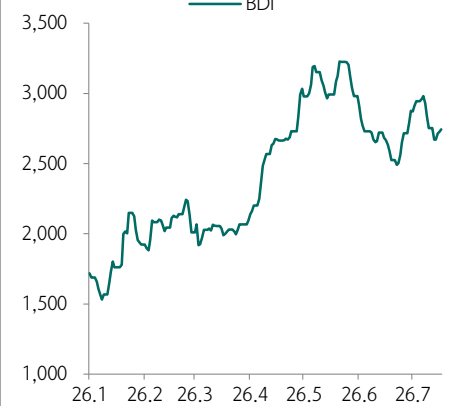
(달러/배럴)



(달러/MBtu)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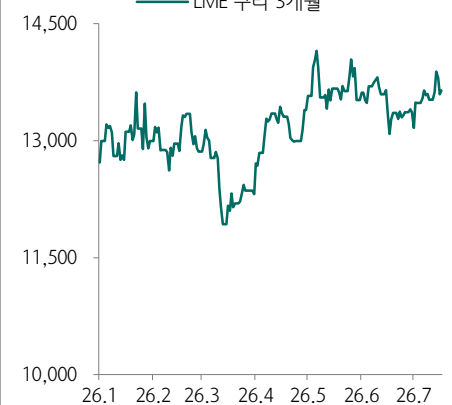
(달러/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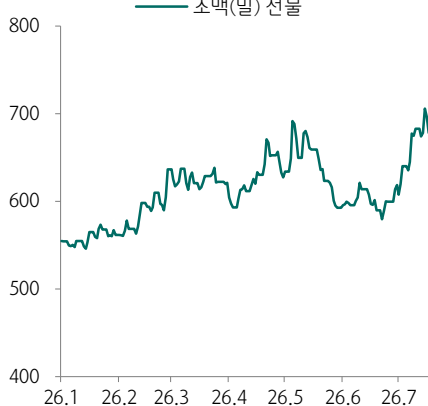
(달러/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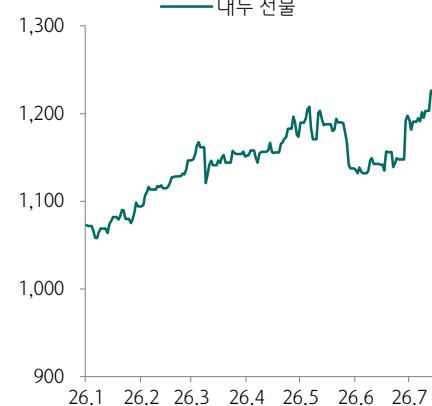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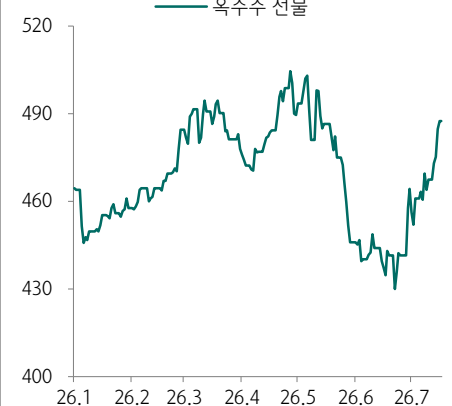
(센트/부셸)



(센트/부셸)



(센트/부셸)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에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7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